광주 곳곳 찾아가는 문화공연 풍성

오페라 · 발레 · 클래식 · 국악 등 공연 다채
4월 5일~11월 매주 토요일…5개 자치구 공원

광주 곳곳을 찾아다니며 힐링을 제공하는 문화공연이 본격 시작된다.

광주시는 대중교통 · 자전거 ·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문화공연을 5개 자치구 공원에서 5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매월 첫째 · 셋째 토요일에는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상상마당, 남구 푸른길공원,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펼쳐지며 둘째 · 넷째 토요일에는 서구 상무시민공원, 북구 양산호수공원에서 열린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광주예술의전당 시립예술단(20회)과 광주문화재단 공모로 선정된 민간단체(40회) 등이 총 60차례 진행된다.

광주시립예술단은 오페라, 발레, 클래식, 국악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5일 공연은 남구 푸른길공원에서 광주시립창극단이 '풍류 in 광주'를 주제로 교방무, 판소리, 아쟁산조, 남도민요, 사물놀이 무대를 펼친다.

동구 ACC상상마당에서는 여성 팝밴드 '원보틀'이 자작곡과 김광석 노래 등 커버곡들을 들려준다. 광산구 쌍암공원에서는 '외씨 버선'이 대중음악과 흥겨운 국악이 융합된 공연을 선보인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광주예술의전당, 박종성×김형석 프로젝트 '그대, 다시'

17일 기획공연 포커스…하모니카 박종성 · 피아노 조영훈 등

GAC기획공연 포커스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할 박종성×김형석 프로젝트 '그대, 다시'가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기획공연 포커스(Focus)는 예술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적 만남을 주선한다.

유명 가수들의 명곡을 만들어 내며 한국 가요사에 큰 획을 그어온 작곡가 김형석과 아시아 태평양대회, 전일본 대회, 세계 하모니카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하모니스트 박종성이 선보이는 프로젝트 '그대, 다시'는 김형석의 수많은 명곡 가운데 박종성이 엄선한 곡들을 직접 편곡, 재해석해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아온 변진섭의 '그대 내게 다시',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등 아름다운 선율의 곡을 상상 이상의 하모니카 사운드로 만나 볼 수 있다.

출연은 하모니카 박종성, 피아노 조영훈, 기타 천상혁, 첼로 채훈선이 함께하며,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형석이 특별 출연해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을 더하며 깊은 여운을 선사할 것이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이며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및 티켓링크(1588-7890)에서 가능하다.

/조선주 기자

기 고

'모두가 함께하는 산불 예방'

김 성
/장흥군수

최근 동시다발 산불 발생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봄은 자연이 깨어나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산불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은 특성상 수관에서 수관으로 바람을 통해 매개되며 번지게 되는데 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 따라서 산불의 진화 단계에도 골타임이 존재한다.

조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최소한의 피해를 입고 진화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몇 배의 시간과 인력, 재산 피해를 요하게 된다.

장흥군은 1월부터 39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채용해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단속, 산불취약지, 산림 100m 내 인화물질(나뭇가지, 고춧대 등)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등 현장 중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본청 산림휴양과와 10개 읍?면에 산불종합상황실을 배치하고 연일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빈틈없는 산불감시체제를 구축했다.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임대사업과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산불모니터링)의 운영을 통해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 전문가를 초청하여 효율적인 진화절차를 학습하고 인명구조 시 행동 절차를 체득하는 등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였다.

하지만 이처럼 잘 훈련된 진화대와 선진화된 시스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 사전 예방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주의가 산불 제로화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다음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이다.

▷산림 연접지 및 논 · 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등산 시 인화물질(라이터, 담배 등)소지 자제 및 입산통제구역 준수.

▷주택 및 공공장소 내 불법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다.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산불이 나면 사람도 자연도 모두 잃게 된다. 산불 예방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해동문화예술촌, 봄맞이 신규 전시 개막

기획전시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 · 어린이 전시 '키치' 주제

(재)담양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봄을 맞아 해동문화예술촌 기획전시와 어린이 전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기획전시 '해충, 따개비, 이끼 : 스며들고, 달라붙고, 얽히며' 전시는 지난달 29일 개막해 6월 1일까지 해동문화예술촌 아레아 갤러리에서 운영된다.

이한나 · 정혜정 · 구기정 작가가 참여해 인간과 비인간, 기술과 생태를 분리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상호 연결된 존재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한다.

이한나 작가는 불결한 존재인 해충을 회화와 조각으로 되살려내, 이들이 살아 숨 쉬는 고유한 세계의 일부임을 드러낸다.

정혜정 작가는 따개비의 시선을 빌려 바다의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영상 작업 '히치하이커_프롤로그'를 선보이며, 구기정 작가는 이끼처럼 미세한 존재들을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기술을 활용해 3D 공간 속에서 재현함으로써 생명과 기술 사이의 복잡한 얽힘을 표현한다.

어린이 체험형 예술전시 '최한나 작가와 함께하는 키치한 세상' 전시 또한 같은 날 개막해 7월 13일까지 해동문화예술촌 소동동에서 진행된다.

키치란 값싼 모조품을 뜻하는 말이지만 작가는 키치에서 영감을 받아 헌 옷, 실, 천과 같은 재료로 캔버스를 채우며 일상 속에서 접했던 물건들을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표현해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한편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4월 26일, 5월 31일, 6월 28일) 오후 2시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작가와 함께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전시연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담양=강성국 기자

광양중앙도서관 '하림' 초청 '북 콘서트'

오는 16일 도서관 주간 맞아 북 토크 · 음악 공연 등

광양중앙도서관이 제61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오는 16일 저녁 7시,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북 콘서트 '봄날의 하림, 책을 부르다'를 운영한다.

하림은 독창적인 음악 감성으로 대중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뮤지션으로, 특유의 따뜻한 음색과 깊이로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예술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적 색채를 녹여내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여 왔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직장인 등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 행사로 기획됐으며, 하림의 북토크와 공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콘서트의 주제는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다. 하림은 동명의 그림책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노래와 함께 다정하게 풀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공연에서는 하림과 함께하는 '우.사.일(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싱어롱 챌린지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광양=조순익 기자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 · 편집인 고제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 · 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처디엠코리아 (031)466-100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한달 : 15,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지국안내

충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동……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994
두 암……266-1920
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9193-6322
담 양…010-9067-4076
곡 성…010-5602-1785
구 례…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3610-9153
강 진…010-3608-0472
장 성…010-3610-7824
함 평…010-3616-4282
영 암…010-4604-3742
무 안…010-2050-0136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 · 독자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